

## 쿠팡, 내달 5일까지 '메가뷰티쇼' 이벤트



쿠팡은 12월 5일까지 빅데이터 기반으로 선정된 인기 뷰티 브랜드를 대상으로 연중 가장 큰 고객 혜택을 제공하는 '메가뷰티쇼'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를 위해 1월부터 10월까지 쿠팡 앱 내 뷰티 관련 쇼핑 검색어 중 가장 검색량이 많고 인기가 급상승하는 뷰티 브랜드 6곳을 선정했다. 참여 브랜드는 에스티로더, 바비브라운, 헤라, AHC, 달바, 라로슈포제이며, 매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 정부, 요소·요소수 확보 총력전

# 요소 재고량 이달 말 바닥...물류대란 날 수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중국발 요소수 대란에 정부가 호주로부터 요소수 2만 리터를 수입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그간 요소수 원료의 98%를 중국 수입에 의존해왔다. 10월 15일부터 시작된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으로 인해 극심한 품귀 현상을 겪고 있다.

정부는 신속한 요소수 수입을 위해 군수송기를 투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2만 리터는 요소수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물량이다. 요소수가 필요한 경우 화물차만 약 200만대인데 2만 리터는 약 2000대에 1번씩 넣을 수 있는 분량이다.

정부, 중국에 신속한 통관진행 요청  
호주로부터 요소수 2만 리터 수입  
대중교통 핵심 버스 대란 우려 커져

### ●요소수 수급 위해 가용 외교채널 총동원

정부는 중국 외에 호주, 베트남 등 요소수 수입 대체국으로부터 물량 확보를 위해 외교 역량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중국 정부에 수만 톤 수준의 요소수 계약분을 중심으로 신속한 수출통관 절차 진행을 요청하는 외교적 협의를 추진 중이다. 또한 호주, 베트남 등 요소수 생산 국가와 연내 수천톤 규모의 요소수 수입을 위해 협의 중이다.

재정·세계 지원에도 나선다. 수입대체에 따른 초과비용 및 물류비 보전 지원과 함께 활동관세(특정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낮춰 주는 제도)를 조속히 시행한다. 신속통관과



요소수 품귀 현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8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한 레미콘 공장에 레미콘운반 트럭들이 주차돼 있다. 버스타 트럭은 물론 레미콘 등 건설 현장에서 쓰이는 차량도 요소수가 반드시 필요해 사태가 장기화되면 물류는 물론 건설 현장도 마비될 우려가 있다.

검사기간 단축을 위해 '긴급통관지원팀'을 운영하고, 차량용 요소수 검사기간도 기존 20일에서 3~5일로 단축한다. 조속한 품질 검사를 위해 시험평가기관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요소·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고시

정부는 요소·요소수 등의 매점매석과 불법 유통 등 시장교란 행위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요소·요소수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를 8일부터 시행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했다. 요소수 품귀현상이 나타나면서 중고거래사이트 등 시장에서는 10리터 당 1만 원 안팎이던 요소수 가격이 10배까지 치솟기도 했다.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부처는 약 1만여 곳의 요소수 및 요소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유통 행위를 단속한다. ▲요소 수입업체 90여 곳 ▲요소수 제조업체 47곳 ▲수입업체 5곳 ▲중간유통사 100곳 ▲주요소 1만 곳 등이다.

로 쓰이는 암모니아수를 활용할 수 있는 시설도 확대할 예정이다.

### ●가시적 성과 없으면 품귀 사태 장기화

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요소수의 생산 원료인 요소 재고량은 이달 말이면 바닥을 드러낼 전망이다. 정부가 요소·요소수 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당장 다음달부터 물류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 대형 화물차의 경우 300~400km마다 요소수를 보충해줘야 하며 요소수를 넣지 않으면 화물차 운행이 불가능하다.

대중교통의 핵심인 버스 대란도 우려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노선버스 5만대 중 요소수를 사용하는 디젤 버스는 약 40%인 2만여 대에 이른다. 버스업체들은 대체로 이달 말까지 운행 가능한 요소수만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학교 통학차량, 학원차 등 일부 전세버스 등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국내에는 요소를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한 곳도 없기 때문에 중국이 요소수 수출 금지를 해제하도록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빠르고 유일한 해법이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 ●요소수란? 요소수는 석탄이나 천연가스에서 뽑아내는 요소(암모니아)에 중류수를 섞어 만드는 촉매제다. 경유 차량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정화시키기 위해 탑재된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에 사용된다. 2015년 1월부터 모든 디젤차에 SCR 장착이 의무화됐으며 요소수가 없으면 승용차의 경우 시동이 안 걸리고, 화물차는 출력이 저하되도록 설정돼 있어 사실상 차량 운행이 불가능하다.

## 메디힐 "처진 피부에 부담없는 탄력 케어" '콜라겐 임팩트인 타이팅 마스크' 출시

밀크 콜라겐 성분...피부탄 타이팅 32.5% 개선 효과



메디힐 '콜라겐 임팩트인 타이팅 마스크' 사진제공 | 메디힐

엘앤피코스메틱의 글로벌 뷰티 브랜드 메디힐이 '콜라겐 임팩트인 타이팅 마스크'를 헬스&뷰티(H&B) 스토어 CJ올리브영 단독으로 선보인다.

밀크 콜라겐 성분이 피부 깊숙이 흡수돼 끈적임없이 딱 탄력 케어를 선사한다. 밀크 콜라겐은 10단계 제조 공법으로 작아진 초저분 자콜라겐과 우유 단백질 및 세라마이드 성분 구성으로 최적의 탄력 부스팅 효과를 전한다. 답답하지 않은 반전 포물라의 쫄쫄한 제형과 유효 성분 흡수력을 극대화하는 콜라겐 이너셀 시트가 탄력 영양 성분의 깊고 강력한 피부 흡수를 돕는다.

3월 선보인 메디힐 '티트리 임팩트인 밸런싱 마스크'에 이어 피부 고민에 따라 골라 쓰는 임팩트인 솔루션 라인업 후속 제품이기도 하다. '티트리 임팩트인 밸런싱 마스크'는 진정에 탁월한 청정 제주산 티트리에 피부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특허 유산균을 더한 티트리 카밍 바이옴 성분을 담아 큰 인기를 얻은 바 있다.

회사 측은 "콜라겐 임팩트인 타이팅 마스크는 인체 적용 시험에서 피부탄(피부결을 구성하는 단위) 타이팅 32.5% 개선 효과를 나타냈으며, 피부 속 탄력 11.38% 개선 및 피부 겉 탄력 6.67%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며 "겉도는 잔여감이나 끈적임 없이 매끈하게 흡수돼 탄력을 잃고 처진 피부에 부담없는 데일리 탄력 케어를 돕는다"고 했다.

가격은 1매당 3000원이며 30일까지 진행되는 론칭 기념행사를 통해 50% 할인가인 1500원에 구매 가능하다. 정정욱 기자 jay@donga.com

##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우리동네 주치의의 건강학

### 성인 남자 50%가 경험하는 '전립선염' 비뇨기과서 정확한 진단·치료 받아야

남성들은 중장년에 접어들면 신체 기능이 저하되고 각종 질환에 노출되기 쉽다. 그중에서도 전립선염은 대표적인 질환이다. 전립선염은 전립선에 염증이 생기는 것으로 성인 남자 50%가 전립선염을 경험한다고 알려져 있다.

배뇨 시 통증이 느껴지거나 소변을 보는 횟수가 늘어난다. 또한 배뇨 후 소변이 남아 있는 시원치 않은 느낌이 남는다. 자다가 깨서 화장실을 가는 등의 다양한 배뇨증상과 하복부, 회음부, 고환 등의 불쾌감, 빠근함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요도의 소양감, 찌릿찌릿한 느낌, 요도 분비물 등의 증상이 동반되기도 한다.

전립선염은 젊은 남성의 경우 성병균이 염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음주, 과로, 스트레스, 오래 앉아 있는 습관 등의 반복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와 관련이 있다.

전립선염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오래 방치하면 회음부, 고환, 아랫배, 골반 등에 만성적인 불쾌감과 통증을 유발하고, 심한 경우 조루증, 지루증, 성욕감퇴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의심 증상이 나타난다면 가까운 비뇨기과를 찾아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받아야 한다.

전립선염의 비뇨기과 치료는 6~8주의 치료기간을 요한다. 초기부터 제대로 치료하면 완치율이 비교적 높으며 재발률도 낮출 수 있다. 치료방법은 생활습관 개선을 통한 원인 제거, 약물치료, 행동치료, 고주파와 저주파를 이용한 자기장치료, ESWP(전기적 충격파) 치료 등이 있다. 전립선염 치료는 풍부한 임상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비뇨기과 전문의가 진행해야 만족스러운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신림동 서울비뇨기과의원 전찬후 원장

## "안전여행으로 일상회복" ... '2021 여행가는 달' 진행

8일~30일, 교통·숙박 등 할인 실시  
방역 인력 지원...안전관광지 추천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8일부터 30일까지 '2021 여행가는 달'을 운영한다.

이번 '2021 여행가는 달'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매년 봄과 가을에 2주간 진행하던 '여행주간'을 통합해 운영하는 사업이다.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에 맞춰 국내여행 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이다.

문체부는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해 전국적으로 안전여행 캠페인을 진행하고 주요 관광지에서 방역인력 3000명을 배치했다. 또한 호텔과 콘도, 유원시설 약 5000개소에 방역물품도 지원했다. 캠페인과 방역인력 배치, 방역물품 지원은 연말까지 계속한다. 관광객들이 거리두기를 하며 즐길 수 있는 비대면 안심관광지를 '대

한국관광공사' 사이트를 통해 추천하고 지역여행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특히 이 기간에 교통, 숙박, 여행 등의 할인을 실시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KTX 왕복권과 관광지 입장권을 결합한 상품을 1만8000명에게 특가로 판매한다. 서해금빛열차, 남도해안열차 등 4개 노선 관광열차는 50% 할인해 2만2000명에게 판매한다. 전국고속버스운송조합(코버스)도 '여행가는 달 고속버스 프리패스'를 1만 명에게 3만5000원씩 할인판매한다.

숙박은 온라인을 통해 국내숙박 예약시 7만 원 이하는 2만 원, 7만 원 초과는 3만 원 할인하는 숙박할인권을 배포한다. 이밖에 패키지 상품을 예약하면 최대 40% 할인받을 수 있고, 유원시설과 야영장 등도 특별할인 행사를 실시한다. '여행가는 달' 홈페이지(travelweek.visitkorea.or.kr)와 SNS에서 진행되는 행사에 참여하면 추천을 통해 국민관광상품권 등 선물을 제공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교통, 숙박, 여행 등에서 다양한 할인과 행사를 준비했으니 방역수칙을 지키며 여행을 즐기는 안전한 여행문화 확산에 모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 '2021 세종대왕 소현왕후' 선발대회 영예의 수상자들

### 향후 대한민국 홍보대사로 활동

7일 서울 광진구 광장동 비스타타워 힐 서울에서 열린 '2021 세종대왕 소현왕후' 선발대회에서 영예의 1위에 오른 모도리 부문 지 여환수, 송아리 부문 지 정종범, 세종대왕 부문 지 김성수, 소현왕후 부문 지 임지현, 송아리 부문 지 유슬지, 모도리 부문 지 최인영(왼쪽부터)이 시상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세종대왕 소현왕후 선발대회'는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인인 세종대왕을 널리 알리고 업적을 계승, 발전

시키기 위해 개최됐다. 세종대왕 소현왕후(20~29세 남녀), 나르샤(19세 이하 남녀), 송아리(30~45세 남녀), 모도리(46세 이상 남녀) 4개 부문으로 나누어 대회를 진행했다. 나르샤 부문에서는 서상현과 강아라가 지와 진에 선발됐다.

수상자들은 향후 대한민국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되며 한글의 우수성과 한복의 아름다움, 한식의 세계화 및 한류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한복 모델로 활동하게 된다.

주현희 기자 teth1147@donga.com